

#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올인

### 전북교육청, 내실있는 학부모교육 추진... 4개 분야 19개 교육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올해도 내실있는 학부모교육을 추진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와 공감능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및 단위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역량강

화 △학부모 재능기부 활성화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 등 4개 분야에서 19개 세부교육이 진행된다.

우선 학부모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리더교육, 심심한 초대 전북교육이카데미,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아버지교육이 마련된다. 또 명사초청 학부모 특강, 법률상식 교육, 자녀 이해 교육, 학부모 독서교육 등

도 이어진다. 학부모 재능기부 활성화 분야에서는 놀이밥퍼 교육,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교육,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 학습친구 엄마샘 자원활동가 교육, 일상 속 읽기&쓰기 교육 등 5개 강좌가 진행된다.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분야에서는 놀이밥 60? 이해교육, 생명감수성 교육,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만들기, 성폭력·도박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생태교육 등을 운

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학부모협의회·지역단위 학부모교육·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등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부모교육도 지속된다.

특히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학부모교육은 4~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be.go.kr/main/main.jbe>)를 통해 교육별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 “22년 연속 종합 4위 달성” 전북체육회, 선수단 격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체육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친다.

1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2년 연속 동계체전 종합 4위를 달성한 전북선수단을 위해 오는 16일과 20일 전주와 무주 등을 직접 돌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한다.

해마다 동계체전이 끝난 뒤에는 해단식 및 입상 격려회를 열어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단식을 열지 않고 종목별 선수단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이에 정강선 회장과 유인탁 사무처장 등 전북체육회 임직원들은 빙상과 아이스하키, 컬링, 스키, 바이애슬론 등 동계종목 선수와 지도자들 격려한다. 또한 시기진작을 위해 동계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수 주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해단식이 취소 돼 아쉽지만 전북체육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을 위한 자리를 작게나마 마련했다”며 “전북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선수단은 지난달 강원과 서울 일원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7개 등 총 69개의 메달을 획득, 22년 연속 종합4위를 달성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관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다가 퇴소한 학생들을 찾아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 김동원 전북대총장 “묵묵히 견뎌 준 유학생들에 감사”

### 격리해제 중국인 학생 격려

“대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 준 유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관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다가 퇴소한 학생들을 찾아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 및 제20기 학생홍보대사들은 13일 생활관 앞에서 격리가 해제된 문을 나서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그간 전북대에는 총 156명의 중국

인 유학생들이 생활관에서 2주 동안 생활했으며, 이날 17명이 격리 해제됐다. 주말 동안 마지막으로 2명이 생활관을 나오면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의 격리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14일에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멕시코, 체코, 대만,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27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3~4일 동안 생활관에 격리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격리 해제된 롱티엔형(심리학) 학생은 “14일 동안 학교에서 제공된 시설이 매우 완벽했고, 음식

영양도 충분히 집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한국 정부와 대학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느꼈다”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감염증으로부터 자유를 기쁘게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의 우의가 영원히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대의를 위해 생활관에서 묵묵히 견뎌 준 해외 입국 유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캄보디아 라이프대학서 후학양성에 힘쓸 것”

### 전주비전대 우수목 교수 퇴임

전주비전대학교 우수목 교수(간호학부)가 퇴임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교수로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전임교수로 부임한 이후 해외협력·연구사업, 평생교육원 방문간호사업, 간호학부 봉사동아리 ‘희망나무’ 창립, 영란장학금 지원 등 전주비전대 간호학부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유 교수는 정년퇴임 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교수로 임명돼 향후 5년간 라이프대학 간호학과 및 조산사 과정의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황순정 학과장은 “2012년 전주비전대 학교 간호학부 시작과 학부의 발전을 함께 해주고, 전라북도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으로 발전을 위해 힘써준 우수목 교수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간호학부는 2012년 정년 30명으로 신설 이후, 2014년에는 4년제 간호학사 학위과정 지정을 받



전주비전대학교 우수목 교수(간호학부)가 퇴임한다.

아 졸업생이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 취업하는 등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사 양성기관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임상병원, 보건소, 다양한 보건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지역간호인력 배출 및 양성에 기여하고, 평생교육원 및 유니테크 사업단에서는 간호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교육(방문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재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하여 전북 헬스케어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전북·시군체육회 발전 맞손

### 정책간담회 열고 협업체계 강화·상생 발전 도모

전북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가 손을 잡았다.

13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14개 시군체육회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체육회장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간 체육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참석자들은 전북체육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협의했고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체육을 실현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제57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각종 체육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

의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에서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하반기로 연기, 개최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인들이 땀을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면서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초·중·고졸 검정고시 5월 9일로 연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월 11일 예정됐던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5월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4개 시험장에서 1,156명, 전국적으로는 96개 시험장에서 3만3,963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긴급하게 결정했으며, 초·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급학교 진

학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검정고시 시행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http://www.jbe.go.kr)) 알림마당에 공고되며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로도 통보한다.

추후 연기에 따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검정고시 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안전한 시험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